07 08 2008 광주비엔날레 결산 ㉠ 성과

아시아 넘어 세계로 '비상'

2008 광주비엔날레의 전시공간이었던 대인시장은 광주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거듭났다. 사진은 지난 8일 대인시장에서 열렸던 토요 예술장터 '와글와글' 행사 모습. 〈광주비엔날레 재단 제공〉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가 국내외 미술계의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대부분 미술 전문가들은 "주제의 틀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작품들이 다양한 소주제를 만들어냈고, 관람문화도 수준 높았다"고 치켜세웠다. 전시 기간 동안 프랑스 르 몽드를 비롯해 전세계 취재진과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케이 소피 감독 등 세계 미술계를 움직이는 거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반면 제3세계의 정치학을 내세운 '흑인 중심의 전시', 관람객들과의 소통이 단절된 재미없는 전시였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제7회광주비엔날레의 성과와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전세계 미술 거장들 대거 참석 열기

대인시장 프로젝트 '문화지도' 바꿔

이번 대회에는 36개국에서 127명의 작가가 참여해 실험성 강한 작품 550여점을 선보였다. 그동안 '열풍변주곡'(제6회) '먼지한톨 물한방울'(제5회) '멈춤, PAUSE, 止'(제4회)' 등 전체 전시를 규정하는 주제를 정했지만 이번 대회는 주제 없는 전시를 표방해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주제라는 특정한 틀에서 벗어난 개성 강한 초대작들은 '불협화음 속 화음'을 만들어 내며 관람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냈다.

미술 전문가들의 호평 속에 "광주비엔날레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이어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막식(9월5일)에 참석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조만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해 제2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서로 결합하고 소통하는 장르 파괴도 관람객들을 즐겁게 했다. 음악 장르와 결합한 이색 작품들이 전시장 분위기를 띄우며, 관람객들이 난해한 현대 미술과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전시 장소를 대인시장, 의재미술관, 광주극장 등 광주 전역으로 확대한 파격적인 기획도 성공적이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수혜주'는 단연 대인시장이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이곳에 윤남웅, 노정숙, 이상호, 조수진, 신양호씨 등 지역작가 13명이 작업실 입주했고, 아트 상품을 판매하는 곳도 10여곳이 생겨났다. 도심 공동화로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있는 등 날로 쇠락해 가던 대인시장이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광주의 문화 명소로 바뀌었다.

의재미술관, 광주극장의 발견도 신선했다. 외국인들은 의재미술관 일대의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터뜨렸고,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의 향수는 광주가 가진 또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과거 관 주도의 딱딱했던 단체 관람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수준 높은 관람 문화 속에서 현대 미술의 진수를 만끽했다. 매 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작품 훼손도 역대 가장 적었다.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하다시피 하던 학생 단체관람도 교육 중심으로 변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미술 교사들을 중심으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에 관람 계획을 세웠다. 재단도 '학교별 1인 담당자'를 정해 아이들의 지도를 맡았고, 학교별 관람 동선을 조정해 과거 단체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려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과거 초대권 남발로 관람객 수를 부풀리던 거품도 뺐다. 유료 관람객은 지난 2006 광주비엔날레(41만6천591명)에 비해 감소한 36만여명(대인시장 3만명 포함)에 그쳤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유료 관람객만 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

미술평론가 정준모(고양문화재단 전시감독)씨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주제를 관객 스스로가 생각하고 떠 올려보게 하는' 고도의 소통 구조가 숨어있는 전시였다"면서 "광주 시민의 삶과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인시장 프로젝트 등은 독창적인 비엔날레를 향해 닻을 올리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동환·조해준 부자의 '미군과 아버지'

조동환 父子 '미군과 아버지' 영구 전시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에

2008 광주비엔날레의 출품작인 조동환·조해준 부자의 '미군과 아버지'(드로잉 168점), '생각하면서 일합시다'가 비엔날레 상설홍보자료관에 영구 전시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9일 오후 6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이들 작품을 2008 광주비엔날레 기념작품으로 선정·발표했다. 재단은 이번 비엔날레를 상징하는 기념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9월 한달간 관람객과 미술전문가, 언론인 등 총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미군과 아버지'는 아버지 조동환씨가 겪었던 일제시대,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등 한국 근대사의 어두운 이면을 아들 조해준씨가 만화처럼 줄거리가 있는 드로잉 연작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또 아버지 조동환씨가 지난 1974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중학생을 모델로 만든 조각품 '생각하며 일합시다'도 함께 기념작품으로 선정됐다. /오광록기자 kroh@

작가 11명 '고인돌 되살리기' 展

청동기 시대의 무덤양식인 고인돌이 그림으로 형상화됐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17일까지 남도지역에 흩어져있는 고인돌을 그린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고인돌 되살리기'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3년 문화진흥과 환경보존을 위해 문인, 음악인, 화가 50여명이 결성한 창작집단인 '맑은세상사람들'의 기획으로 이뤄졌다.

김해성, 박태후, 박홍수, 송필용, 양홍길, 위성만, 장현우, 정명돈, 정상섭, 조근호, 조진호씨 등 작가 11명이 순천 승주, 완도 청산도, 화순 등지를 돌며 고인돌을 화폭에 담았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상섭 작 '보성군 동촌리 고인돌'

아시아공연예술제 총감독 최영화 송원대 교수 선임

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 추진위(위원장 최규철)는 8일 2008 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12월 30일~내년 1월 14일) 예술총감독으로 최영화(46·극단 진달래 피네 대표·사진) 송원대 교수를 선임했다.

최 감독은 공연예술제 프로그램 개발 등 총괄 행사 기획 및 연출을 맡게 된다.

전국연극제에서 '취선록'으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최씨는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충장로 축제 등 지역 문화행사의 프로그래머와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김미은기자 mekim@

비올리스트 신정문씨 브람스 곡 묶어 독주회

비올리스트 신정문(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사진)씨가 늦가을 쓸쓸한 정취에 어울리는 브람스의 곡만을 묶어 독주회를 마련했다.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번 연주회에서는 '알토와 피아노 비올라를 위한 두 개의 노래', '소나타 1번 작품 120-1', '피아노와 비올라를 위한 스케르쪼', 헝가리안 댄스 5번, 왈츠 등 브람스의 명곡을 메들리로 엮어 새롭게 편곡한 '브람스를 좋아 하세요…'를 들려준다. 문의 062-412-5252. /김미은기자 mekim@

박진현의 문화카페

오바마의 '딥 임팩트'

"기자양반, 대통령 역할을 하는 데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나는 흑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역할을 한 겁니다."

1998년 영화 '딥 임팩트(Deep Impact)'에서 미국 대통령 역을 맡은 흑인배우 모건 프리먼이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흑인 대통령 연기를 위해 어떤 연구를 했느냐"는 한 기자의 우문(愚問)에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흑인과 백인으로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흑인대통령은 단지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기자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듯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모건 프리먼의 믿음직한 리더십은 미국인들이 꼽은 최고의 대통령 설문에서 '에어포스 원'의 해리슨 포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미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흑인대통령의 역사는 이보다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1933년 작 단편 뮤지컬 영화인 '루퍼스 존스를 대통령으로'이다. 21분 분량의 이 영화에서 아홉 살 흑인 소년은 꿈속에서 대통령이 되는 깜찍한 상상을 한다.

장편 영화로는 제임스 얼 존스가 출연한 1972년 작 '더 맨'이 가장 먼저 흑인 대통령을 등장시킨 영화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건물 붕괴로 사망하고 부통령은 병세 악화를 이유로 사퇴하자 상원의장이던 흑인 더글러스 딜만이 새 대통령이 된다는 설정이다.

유명 코미디언 크리스 락은 2003년 '헤드 오브 스테이트(Head of State)'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했다. 평범한 흑인 시의원이 얼떨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 결국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서 크리스 락은 비속어와 랩을 즐기는 '망가진'(?) 대통령을 연기해 인기를 끌었다.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흑인대통령이 '현실'이 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전 세계 안방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전해졌다. 뿌리깊은 인종차별 풍토에 맞서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된 그의 열정은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지구촌에 큰 감동을 주었다.

그 때문일까? 최근 국내 서점가에는 오바마 관련 서적을 찾는 독자들이 부쩍 늘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오바마 관련서적은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 '오바마 새로운 미래 아이콘' 등 20여 종. 대부분 오바마의 정치철학과 인생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담대한 희망'은 출판계의 불황 속에서도 1만 부가 넘게 팔렸다. 무모한 도전을 담대한 희망으로 일궈낸 오바마의 '예스 위 캔(Yes we can)'정신이 불경기로 굳게 닫힌 독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미드(미국 드라마)'에서 느낄 수 없는, 인간 오바마의 '딥 임팩트'이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